



Kiwoom Weekly



2024년 9월 30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또 다른 변동성의 시작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9월 고용 및 ISM 제조업 PMI, 한국 수출, 2) 파월의장 발언, 3)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 변화, 4)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5) 국내 휴장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580~2,720pt).

시장은 주중 미국의 ISM 제조업 PMI, 9월 고용 등 메이저 경제지표 결과를 주시할 예정. 관건은 쇼크를 기록했을 시 주식시장이 얼마 만큼의 가격 조정을 받느냐가 될 것. 직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산될 소지는 다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서프라이즈 지수상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는 등 지난 1~2개월 전에 비해 침체 진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한편, 인민은행의 부양책 이후 중화권 증시는 폭등하고 있으며, 중국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요인(지난주 코스피 +2.2%, 나스닥 +1.0%, 상해종합 +12.8%, 홍콩 항셍 +13.0%). 중국 증시는 1일~7일 국경절 휴장에 들어가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차이나 플레이가 유행 테마로 자리잡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7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마이크로 호실적, 중국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밸류업 지수 등에 영향을 받으며 양 지수는 상승 (KOSPI +2.18%, KOSDAQ +3.50%)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발 경기부양책 수혜, 밸류업 지수 편입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거래소에서 발표한 밸류업 지수는 '주주환원 지표'보다는 'PBR'과 'ROE'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이었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했던 고평가 기업들이 지수 내 다수 편입됨에 따라 수급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 일부 지수 편입 종목들은 급등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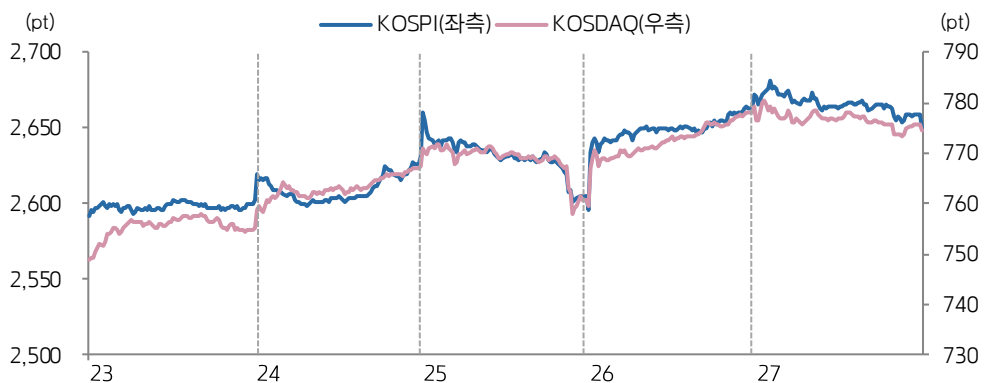
이후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마이크로 호실적과 양호한 가이드언스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 특히, 그간 불거졌던 AI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대폭 완화시킨 점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훈풍으로 작용. 이와 더불어 SK하이닉스가 최초로 12단 HBM3E 양산에 돌입하고 연내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후공정 관련주 중심으로 추가 상승폭 확대.

또한,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요인은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국 인민은행은 침체되었는 부동산과 내수를 진작하고자 기준율 50bp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 통화정책에 이어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재정정책까지 동원한다는 내용까지 전해지자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 이에 최근 미국의 빅컷(50bp 금리 인하)과 맞물려 중국의 대규모 부양 패키지가 더해지자 아시아, 유럽 증시 대부분이 강세로 마감.

업종별로 섬유 의복(+10.1%), 화학(+9.21%), 의료정밀(+6.49%), 전기전자(+5.07%), 운수창고(+4.81%)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업(-5.47%), 의약품(-4.65%), 보험(-3.23%), 통신업(-1.95%), 건설업(-1.79%)이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8,968억원)은 화학(+1,114억원), 운수장비(+1,083억원), 운수창고(+951억원), 서비스업(+657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1조 8,370억원)은 전기전자(+11,814억원), 화학(+4,103억원), 기계(+1,326억원), 서비스업(+1,111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종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4년 9월 30일

KIWOOM WEEKLY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9 월 30 일	월	한국	산업생산 (YoY)	8 월	2.0%	5.5%
			산업생산 (MoM)	8 월	3.3%	-3.6%
		중국	제조업 PMI	9 월	49.5	49.1
			비제조업 PMI	9 월	50.4	50.3
			Caixin 제조업 PMI	9 월	50.5	50.4
			Caixin 서비스 PMI	9 월	51.6	51.6
		독일	CPI (MoM)	9 월	-	-0.1%
			CPI (YoY)	9 월	-	1.9%
		미국	MNI 시카고 PMI	9 월	46.8	46.1
			달러스 연준 제조업활동지수	9 월	-10.6	-9.7
		발언	미 연준의장			
10 월 1 일	화	한국	수출액 (YoY)	9 월	6.6%	11.2%
			수입액 (YoY)	9 월	3.8%	6.0%
			무역수지	9 월	3.91M	3.77B
		미국	제조업 PMI	9 월	47	47.9(47.0)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9 월	47.6	47.2
			노동부 JOLTs (구인, 아직 보고서)	8 월	-	7.673M
		정치	미국 부통령 후보 TV 토론			
		휴장	한국, 중국			
		발언	애틀란타, 보스턴, 리치몬드 연은 총재			
10 월 2 일	수	한국	CPI (MoM)	9 월	0.4%	0.4%
			CPI (YoY)	9 월	1.9%	2.0%
		유로존	실업률	8 월	-	6.4%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9 월	123K	99K
		발언	클리블랜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보우만 미 연준 이사			
		휴장	중국			
		실적	나이키			
10 월 3 일	목	유로존	서비스 PMI	9 월	-	50.5
			생산자물가지수 (MoM)	8 월	-	0.8%
			생산자물가지수 (YoY)	8 월	-	-2.1%
		미국	서비스 PMI	9 월	-	55.7(55.4)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9 월	51.5	51.5
		발언	카사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휴장	한국, 중국			
10 월 4 일	금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9 월	0.3%	0.4%
			비농업고용지수	9 월	140K	142K
			경제활동참가율	9 월	-	62.7%
			실업률	9 월	4.2%	4.2%
		휴장	중국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9월 고용 및 ISM 제조업 PMI, 한국 수출, 2) 파월의장 발언, 3)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엔/달러 환율 변화, 4) 차이나 플레이 지속 여부, 5) 국내 휴장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580~2,720pt).

27일(금) 미국 증시는 8월 PCE 물가 둔화, 9월 소비심리지수 호조에도, 주가 고점 부담 속 엔화 강세 경계심리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3%, S&P500 -0.1%, 나스닥 -0.4%). 이날 발표된 8월 헤드라인과 코어 PCE 물가는 각각 2.2%(YoY, 컨센 2.3%), 2.7%(YoY, 컨센 2.7%)로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있음을 재확인한 상태. 더 나아가, 10월 발표 예정인 9월 CPI도 클리블랜드 연은의 인플레이션 모델 상 헤드라인과 코어가 각각 2.25%(YoY, 8월 2.5%), 3.31%(YoY, 9월 3.2%)로 제시되고 있는 등 9월 인플레이션도 연준의 금리인하에 명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인플레이션의 증시 영향력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주중 미국의 ISM 제조업 PMI, 9월 고용 등 메이저 경제지표 결과를 주시할 예정. 지난 2개월간 매달 초마다 주식시장에서 침체 내려티브가 확산시켰던 촉매가 상기 두개 지표였기 때문. 현재 9월 ISM 제조업 PMI의 컨센서스를 보면 47.6pt로 8월에 비해(47.2pt)에 호전될 전망이며, 9월 실업률 컨센서스도 4.2%로 8월(4.2%)과 동일할 것으로 형성된 상황.

관건은 쇼크를 기록했을 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느냐가 될 것. 직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산될 소지는 다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서프라이즈 지수 상 경기 모멘텀이 개선되는 등 지난 1~2개월 전에 비해 침체 진입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전 침체 내려티브 확산 시기와 달리, 연준이 실제로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 이들 지표 발표 전 30일(월)에 연설이 예정된 파월 의장 역시 경기 침체 방지 목적의 사전적 대응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판단, 이번 9월 ISM, 고용 쇼크가 현실화 되더라도 주가 조정의 강도와 지속성은 이전에 비해 얇고 짧을 것으로 예상.

주중 매크로 상 증시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는 엔/달러 환율일 것. 지난 금요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차기총재로 금리인상에 호의적인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됐기 때문. 그의 당선 소식 이후 엔/달러 환율은 146엔에서 142엔대로 빠르게 하락하는 엔 강세가 출현했으며, 그 여파로 27일 일본 닛케이 선물은 4.7%대 급락한 상태. 물론 침체와 마찬가지로 엔-캐리 청산 내려티브는 이전에 비해 약화됐지만, 닛케이 선물 급락으로 월요일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장 개시 직후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1일(화) 예정된 한국 9월 수출의 경우, 컨센서스가 6.6%(YoY)로 전월(11.2%)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형성. 다만, 9월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이번 수출 결과 해석에 반영할 필요. 또 3분기 실적시즌 진입 전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업종들의 이익 전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품목별 결과도 중요. 한편, 인민은행의 부양책 이후 중화권 증시는 폭등하고 있으며, 중국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요인(지난주 지수 등락률, 코스피 +2.2%, 나스닥 +1.0%, 상해종합 +12.8%, 홍콩恒生 +13.0%). 중국 증시는 1일~7일 국경절 휴장에 들어가는 만큼, 해당 기간 동안에 국내 증시에서 차이나 플레이가 유행 테마로 자리잡을 지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

2024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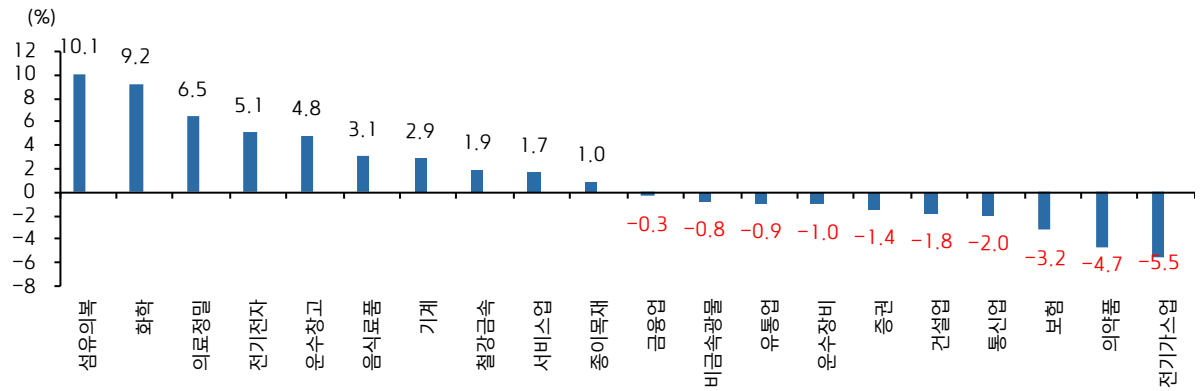
KIWOOM WEEKLY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종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649.78	-0.8	2.2	-1.5	-0.2
대형주	2,646.66	-1.0	2.3	-1.7	-0.2
중형주	2,917.31	-0.1	1.9	-0.7	4.7
소형주	2,250.47	0.0	1.4	-0.6	-1.6
코스피 200	353.93	-0.7	2.7	-2.9	-1.1
코스닥	774.49	-0.6	3.5	1.3	-10.6
대형주	1,876.41	-1.0	3.8	1.6	-7.6
중형주	659.14	-0.3	4.5	1.7	-7.8
소형주	2,478.99	-0.1	2.5	0.2	-11.7
코스닥 150	1,307.80	-1.1	3.4	2.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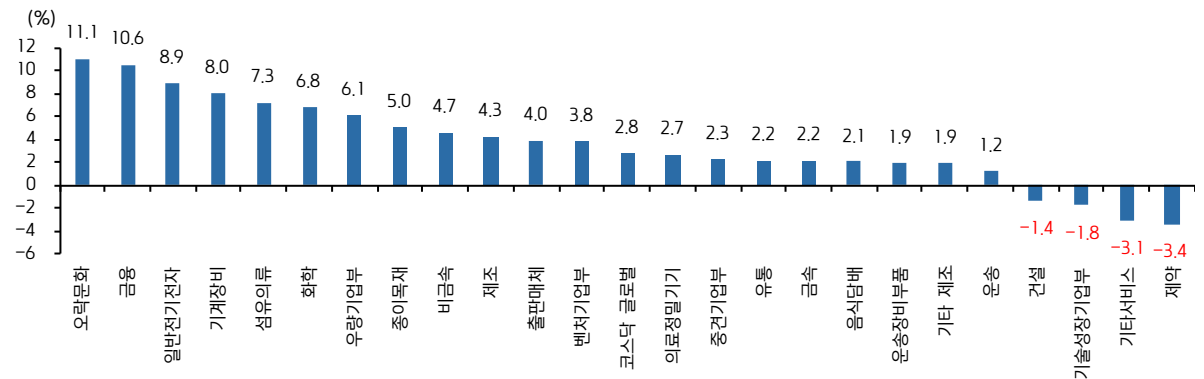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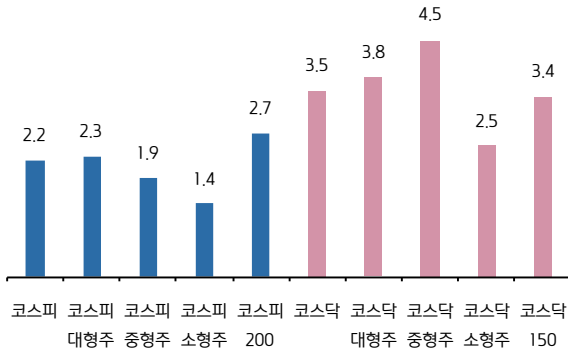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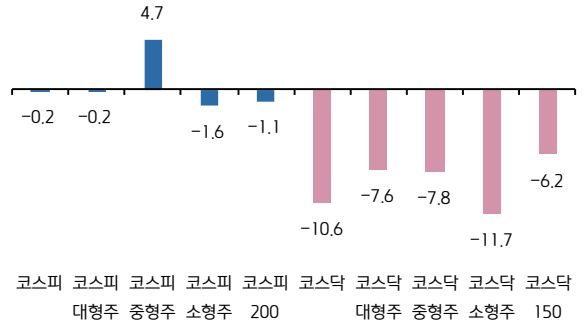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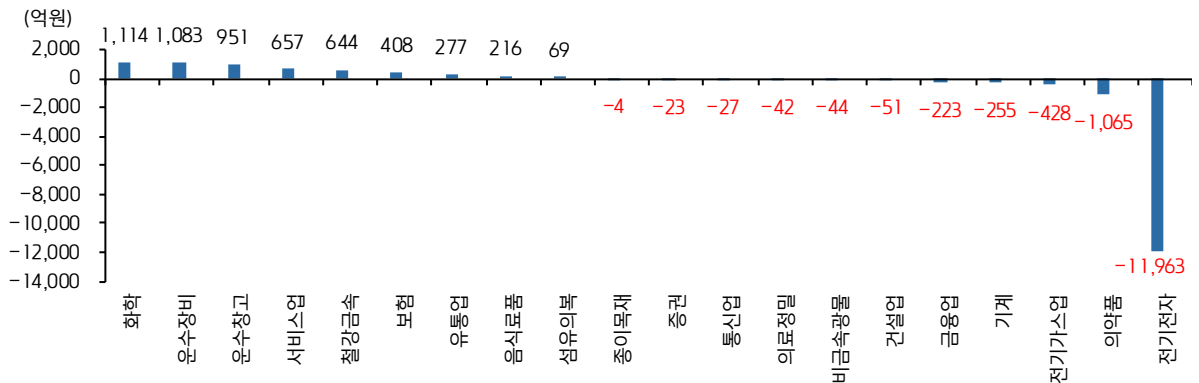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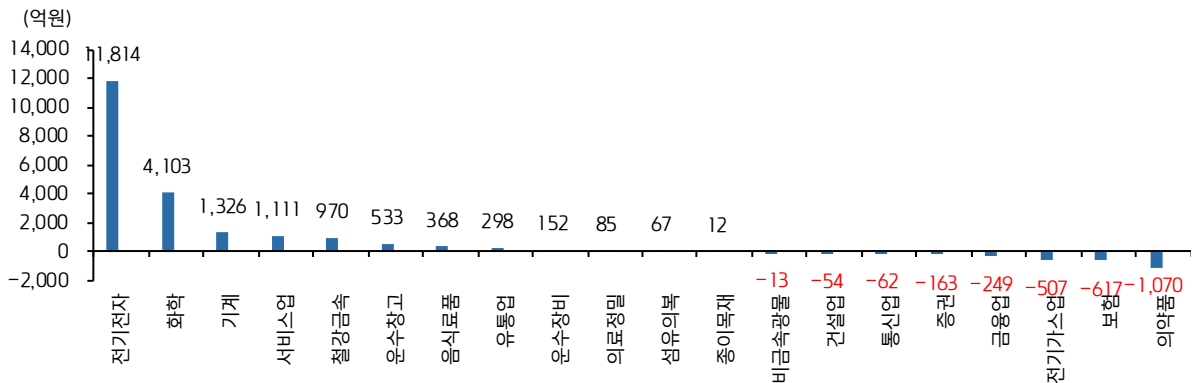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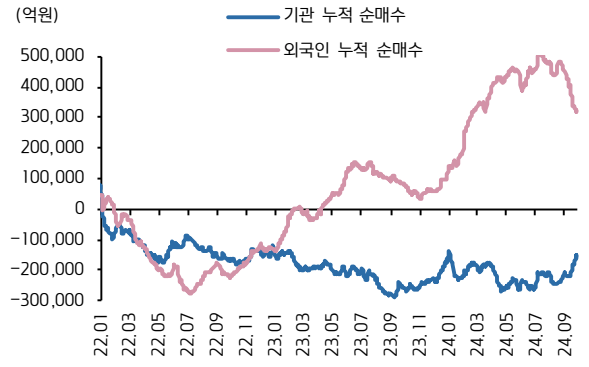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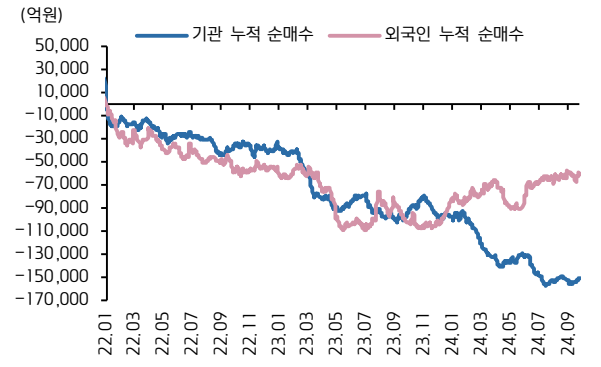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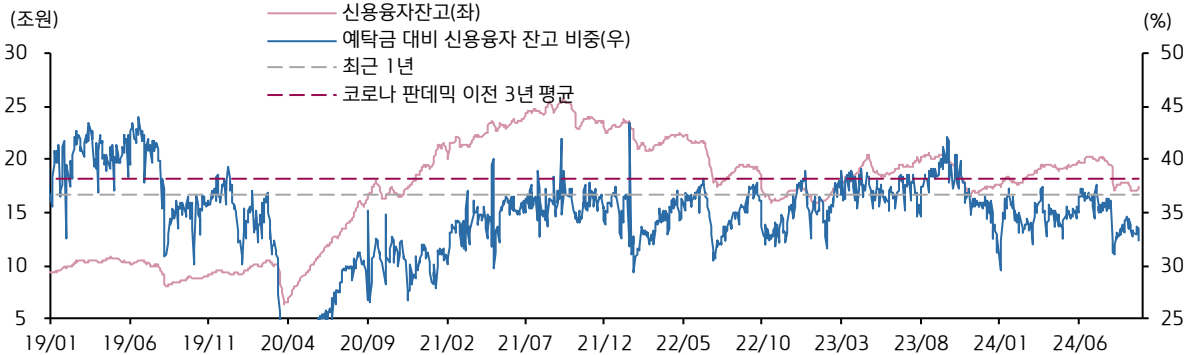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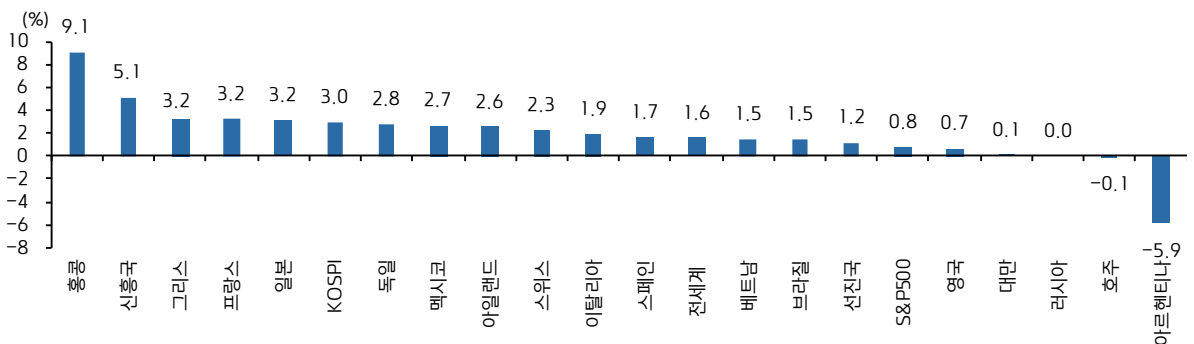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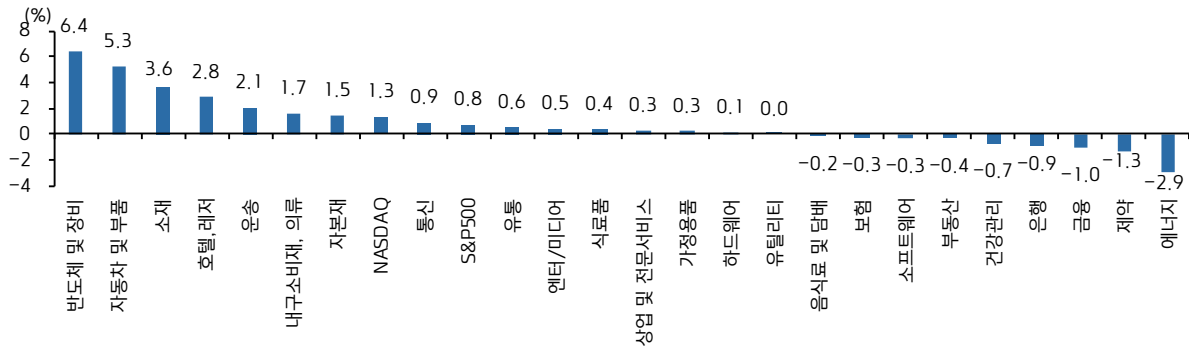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9월 30일

KIWOOM WEEKLY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